

엇박자 D

김중혁

화면 속으로 엇박자 D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잠깐 앞으로 돌려 봐, 방금 고객들 점프하는 장면, 좀더, 좀더…… 그
래 거기.”

DVD 편집 조감독이 화면을 정지시켰다. 정지해 놓고 보니 기괴한 장면이었다. 엇박자 D는 수많은 관객들 사이에서 우뚝 솟아올라 있었다. 사람들 머리 위로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무대를 향해 환호하는 관객들 사이에서 그는 무표정하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 있었다. 2미터가 넘는 꺾다리도 아니고, 발밑에 스프링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높이 뛰어올랐을까. 편집 조감독이 물었다.

“왜요? 아는 사람이예요?”

“응, 옛날 친구야.”

“친구가 높이뛰기 선수였어요? 엄청 높이 뛰어올랐네.”

“일종의 착시 현상이지. 화면 돌려 봐.”

편집 조감독은 조그서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다.

“아, 난 또 무슨 소리가 했네. 이 사람 엿박자로 뛰고 있네.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뛰어올랐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혼자 위로 뛰네. 높이뛰기가
아니라 널뛰기 선수였어요?”

“박자를 못 맞추는 거야.”

“에이, 설마, 그렇게 일정하게 박자를 놓치는 사람이 어딴데요? 아니,
저 정도로 맞추려면 남다른 박자 감각이 필요하겠는데요?”

편집 조감독과 나는 촬영된 화면을 뒤져 엿박자 D가 등장하는 장면을
서너 개 더 찾아냈다. 모든 장면에서 그는 눈에 띄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수많은 관객들을 상대로 널을 뛰고 있는 것 같았다. 편집 조감독은 엿박자
D의 진지한 표정이 담긴 화면을 보고 무릎을 치며 한참 웃었다. 불쑥불쑥
머리를 내미는 그의 모습도 이상했지만, 입을 짝 담은 채 솟아오르는 그의
진지한 표정은 오래된 코미디 영화의 이상한 주인공 같았다. 엿박자 D는 고
등학교 때부터 눈썹이 짙기로 유명했는데 그 모습도 변함이 없었다. 언뜻
보면 두 개의 작고 검은 막대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 아저씨 너무 웃기네. 인트로에 넣으면 재미있겠어요. 아예 이번 공
연을 DVD 표지에 써 볼까요? 카피는 이거 어때요? 엿박자 세상을 뒤집기
위해 우리의 음악도 엿박자.”

우리는 엿박자 D가 등장하는 또 다른 화면이 없나 살펴보았지만 공연
후반부에서는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엿박자 D뿐 아니라 많은 관객들
이 공연장을 빠져나갔다. 공연 후반부가 좀 지루하긴 했다.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날씨가 너무 맑았다. 몽환적인 전자 음악을 하는 밴
드의 공연과 맑은 날씨는 어울리질 않는다. 비가 스산하게 내리거나 무더운
날씨였다면 좋았겠지만,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높았고 햇볕도 따스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황홀한 전기 기타의 몽환적인 소리여, 너의 파동으로

나의 뇌를 녹이고 싶구나.’ 따위의 생각을 할 리가 없다. 모든 관객의 뇌가
지극히 건강하고 말랑말랑하고 뽀송뽀송한 상태였던 것이다. 공연 장소를
바닷가로 정할 때부터 이미 비극은 예정돼 있었다.

“바닷가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관객들은 음악과 파도 소리를 함께
듣는 거죠. 초강력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 부럽지 않을 겁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공연 문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 보이겠습니다.”라고 기획안을 얘기
했던 두 달 전에는 모두들 박수를 쳤지만, 지금은 박수 쳤던 손을 뒤로 숨겨
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내 잘못도 아니고, 밴드의 잘못도 아니고, 관객들
의 잘못도 아니다. 어차피 공연이란, 심지어 몽환적인 록밴드의 공연이란
진한 화장을 한 늙은 창녀 같은 이미지가 돼 버린 지 오래였다.

“감독님, 어때요? 저 아저씨 사진, 표지로 쓸까요, 말까요?”

“응, 좋을 대로 해.”

모니터에는 엿박자 D의 모습이 커다랗게 확대돼 있었다. 얼굴 여기저
기에 주름이 생겼지만 표정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20년 전에도 저렇
게 진지한 얼굴로 립싱크를 했었다.

엿박자 D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다. 합
창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했지만 애당초 제대로 된 합창단은 불가능한
집단이었다. 합창단은,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및 민주적 생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 활동’ 중 하나였지만, 특
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일이라는 건 1
년에 한 번 있는 학교 축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
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실수를 하면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돌을 던지면 던지는가 보다, 돌에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노래를 한 곡만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
했다.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라 할 만했다.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가출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나 역시 가출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파격을 찾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등학생에게 ‘합창’이라는 단어는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느낌이었다.

합창단 활동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은 엃박자 D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특활반 중의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첫 모임에서부터 남달랐다. 혹시, 정말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의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었다.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음악 선생과 나머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레, 그럼, 네가 단장을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의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그리고, 음, 뭐, 딱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네가 단장이 됐으니까…… 그레, 축하한다, 라는 선생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가 곧 입을 열었다.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그거야 지금 정하긴 힘들고, 다섯 달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지.”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연습? 아, 그레, 연습.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하도록 하자.”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지?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해도 되고.”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다. 실망한 엃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

는다. 아무도 엃박자 D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엃박자 D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음악실 의자의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이었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즈음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 그냥 제목을 댔)고, 모두들 찬성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데 여러 명이 뛰어들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엃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다섯 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 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 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냐?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 봐.”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병긋병긋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엇박자 D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이 했던 말과 엇박자 D의 반응과 친구들의 속삭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름만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엇박자 D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이름이 혀끝에 오르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D라는 문자는 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왔다. D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니셜인지, 아니면 그가 D음만을 고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D라는 문자를 보고 있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감지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엇박자 D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재미있는 추억거리였고, ‘엇박자 디’라고 발음할 때의 이상한 쾌감도 좋았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면 대개 첫 연습 때 그가 보여 준 놀라운 엇박에 대한 감탄이 이야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엇박자 D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공연 DVD가 발매되고 2주일이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엇박자 D라고 하면 아실 거라는데요.”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불편함이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첫째, 그와 내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둘째, 그는 DVD 표지에 실린 자신의 사진 이야기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분명하며, 셋째, 내게 무언가 부탁을 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이 마흔이 가까워지면,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말고는 전화를 걸지 않게 마련이다. 나이 마흔이 가까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탁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사이 전화가 넘어와 버렸다.

“나 기억하지? 고등학교 때 엇박자 D라고 불렀는데…….”

기억난다고 하는 게 좋을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유리할지 알 수 없었다. 기억난다고 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이다. 짧은 게 낫다.

“어, 그럼, 기억하지. 진짜 오랜만이다. 20년 만인가? 어떤 일이야 전화를 다 주고?”

“얼마 전에 네가 기획한 공연 있잖아. 그 DVD 표지에 내 얼굴이 나왔잖아. 난 줄 알고 그 사진을 쓴 거 아냐? 넌 몰랐어?”

공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DVD 편집 조감독이 엿박자 D를 표지로 쓸 것인지 물었을 때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야 했다.

“아, 그게 너였어? 난 몰랐지. DVD 제작은 다른 팀에서 도맡아 하거든.”

“그 공연이 너무 좋아서 DVD로 소장하려고 사러 갔는데 표지에 내 얼굴이 박혀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 공연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왜, 공연 중간에 빠져나간 거야? 라는 말이 나올 뻔했지만, 얘기가 길어지는 건 싫었다.

“아, 그랬구나. 놀랐겠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진을 쓰려면 당사자한테 허락받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뭔가 대가를 원하는 거야? 왜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함부로 쓴 거야? 이런 얘길 하고 싶은 거야?

“허락은 무슨…… 난 그냥 신기해서…… 그런 좋은 공연 DVD 표지에 내 사진이 실린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건 이래서 싫다. 상대방은 진짜 마음을 알 수 없다. 눈빛의 흔들림이나 미묘한 입가의 흔들림을 보지 않고선 상대방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그가 본론을 꺼내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나이는 허투루 먹는 게 아니다.

“무슨 부탁인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면서 이야기하자.”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어. 새로운 공연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걸려 있는 일도 많고…… 전화로는 안 돼?”

“바쁘구나. 안 될 건 없는데 너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지.”

“누굴 소개시켜 줘?”

“공연 기획 많이 했으니까 너도 알지 모르겠다. ‘더블더빙’(2*dubbing)이라는 그룹의 리더인데, 요즘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나하고…….”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더블더빙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주변의 모든 영상과 소리가 일시 정지됐다. 더블더빙은 음악계의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공연도 하지 않았지만 음악적으로 완벽에 가깝다는 찬사를 받는 그룹이었다. 나 역시 더블더빙을 좋아했고, 특히 두 번째 앨범은 ‘내 인생 최고의 앨범 베스트 10’ 중 하나다.

“더블더빙이란 그룹 알아?”

“응, 노래 몇 곡은 들어 봤지. 그럼 겸사겸사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볼까. 넌 언제가 괜찮아?”

엿박자 D는 아마 나의 진심을 눈치챘을 것이다. 더블더빙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더블더빙을 볼 수 있다면 그쯤은 들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저녁 약속에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 데 한 시간이나 걸렸다. 어떤 옷은 아무렇게나 입은 듯 가벼워 보였고, 어떤 옷은 너무 꾸민 티가 났다. 음악을 들어 보긴 했지만 아주 잘 알거나 좋아하는 그룹은 아니라서 이 정도만 신경 썼어요, 라는 느낌이 들 만한, 아무렇게나 입고 나왔지만 옷 입는 센스가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라는 느낌이 들 만한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약속 장소에 10분 늦게 도착했다. 부러 그런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미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엿박자 D는 나를 소개했다.

“이쪽은 내 고등학교 친구이자 능력 있는 공연 기획자 K씨고, 이쪽은 그룹 더블더빙의 리더인, 이더빙 씨. 그런데 이더빙이 뭐냐,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라.”

“아닙니다, 이더빙 씨. 왜 그래, 부르기도 좋고 귀에 쏙쏙 박히는 이름

인데. 이름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하.”

만난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더빙과 엇박자 D는 10년 정도의 나이 차가 있었지만 이미 나이를 뛰어넘은 사이인 것 같았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얇은 선으로 연결돼 있었고, 그 선은 나의 접근을 막는 철조망 같은 것이기도 했다. 조금 불쾌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더빙과는 처음 만나는 사이였고, 엇박자 D와는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니 어색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나는 분위기를 주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친구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시죠? 얘기 안 하던가요? 우린 다 엇박자 D라고 불렀어요. 그땐 참 대단했는데 말야. 네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모두 박자 감각을 잃어버렸잖아. 신기했어. 박자의 블랙홀, 사라진 음정을 찾아서, 그런 농담들을 했잖아. 지금도 그 박자 감각은 여전하지? 난 가끔 너의 엇박자가 그림기도 하더라고.”

“그랬어요? 야, 신기하네. 노래 되게 잘하시던데…….”

“잘하죠. 잘하는데, 문제는 혼자 따로 논다는 거예요. 원, 음정과 박자에 그렇게 사교성이 없어서야 어디 사회생활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하하.”

“저도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 봐야겠는데요. 제 음정과 박자도 어디론가 사라지는지.”

“이더빙씨, 조심하세요. 음악계의 샛별이 유성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가수 생활 중치시려거든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하하.”

엇박자 D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기분 나쁜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거기까지였다. 하루 종일 20년 전의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엇박자 D의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그가 웃지 않으니 농담을 계속할 수 없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기다란

선이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고, 엇박자 D와 이더빙이 주로 이야기를 했다. 공연에 대한 이야기, 새로 발매한 음반에 대한 이야기 등 주로 이더빙에 관한 것이었다. 나도 가끔 이야기에 끼어들었지만 두 사람이 쳐 놓은 눈빛들의 선을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 공연 컨설팅을 좀 해 줄 수 있겠어?”

디저트를 먹고 있을 때 엇박자 D가 이야기를 꺼냈다. 나의 예상과는 달랐다. 내가 예상했던 이야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짝값에 공연 기획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둘째, 아예 공짜로 공연 기획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두었다.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마지못해, 너니까, 너는 나의 고등학교 친구니까, 오케이’였다. 더블더빙과의 공연은 B급 기획자에서 A급 기획자로 올라설 발판이 될 수 있었다. 공연 기획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큰 공연을 해 본 적이 없었다. 나쁜 이력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어디에도 특별한 방점이 찍힐 만한 곳은 없었다. 더블더빙과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나를 원하는 아티스트들이 줄을 설 것이며 그때부터는 정말 멋진 공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웃을 고르고 식당으로 오면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컨설팅이라니? 공연 기획은 누구한테 맡겼는데?”

“응, 그게, 내가 한번 해 보려고…….”

엇박자 D의 말에는 나지막한 자신감이 있었다.

“네가? 네가 기획을 한다고? 너, 공연 기획을 공부했어?”

“아니, 전혀. 공연 보는 걸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근처에도 가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컨설팅을 부탁하는 거지.”

“도전 의식이 멋진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내

가 10년 동안 공연 기획을 하면서 뭘 배웠는지 알아? 아, 이걸 슈퍼맨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어쭙잖게 흥내만 내다가는 힘들게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를 엇 먹이는 거구나. 그냥 나 같은 전문가한테 맡겨. 왜 그렇게 사회성이 없니. 친구를 써먹으란 말야. 내가 친구한테 장사하겠냐? 친구 부탁이면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어.”

“왜 그래요, 이 형 감각 있어요.”

“이더빙 씨, 그게 감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전 이미 신의 경기에 올라섰을 거예요. 감동을 이끌어 내는 감성,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 스태프를 관리하는 카리스마, 마케팅 능력,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처하는 순발력, 등등등등, 그 모든 걸 다 잘해야 합니다.”

“네 얘길 들으니 겁나기도 하네. 알았어. 그럼, 좀더 생각해 보고 다시 얘기하자.”

엃박자 D가 대화에서 한발 빠지니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왜 나에게 공연 기획을 맡기지 않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공짜로 해 주겠다는데도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엃박자 D와의 만남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화가 나 있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엃박자 D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20년 만에 나타난 그가 싫어졌다. 나는 빈집에 들어가 혼자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다. 잠이 들 때에는 40이라는 나이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엃박자 D를 다시 만난 것은 3일 후였다. 그가 사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만나자는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내 사무실에서 보자고 했다.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그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책상을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었고 바닥에다 공연 기획 보고서를 높게 쌓아 놓았고 아이디어 회의 때 만들었던 회의록도 펼쳐 두었다. 내 사무실은 엃박자 D를

설득하기 위한 무대가 되었다.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하지? 밖에서 보면 좋겠지만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말야. 그리고 요즘은 조용히 얘기할 만한 카페가 없잖아. 엉터리 노래들이 카페를 장악해 버렸어.”

엃박자 D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내가 준비해 둔 무대 장치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 두었던 책을 한쪽에다 쌓고 소파 쪽으로 그를 안내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무대의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모두 잘 아는, 뛰어난 배우였다.

“*무성 영화 전공했다고 했지? 지금은 강의 나가고 있어?”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다. 네 전공이 뭐야? 공연 기획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공연 기획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난번 저녁 식사 때 그가 대학원에서 무성 영화를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침묵의 영상에는 박자나 음정이 필요 없을 테니까.

“강의 몇 군데 나가고 여기저기 글 쓰고, 영화 잡지 편집 위원 같은 것도 해. 그래 봤자 돈 되는 일은 별로 없지.”

“공연 기획도 마찬가지야. 한 3, 4개월 뻥세게 준비해도 공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겨우 먹고사는 정도지. 나이 마흔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다.”

“그래도 너 정도면 자리는 잡은 거 아냐?”

“자리? 이 자리? 이 소파 크기가 딱 내 자리겠다. 이렇게 안락한 소파를 차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게 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니 초라했다. 엃박자 D에게서 더블더빙의 공연을 빼

무성 영화 인물의 대사, 음향 효과 따위의 소리가 없이 영상만으로 된 영화.

앗아 오겠다는 목적으로 꺼낸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고등학교 때 축제 기억나지? 우리 합창했던 때.”

엇박자 D가 축제 얘기를 먼저 꺼낼 줄은 몰랐다. 축제 때의 공연 이후 친구들은 엇박자 D가 목을 매고 죽으면 어쩌하나 걱정했다. 모르긴 몰라도 축제일은 그의 인생 중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 하루였을 것이다. 공연을 위해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과 세계사 연표만 열심히 외운 상태였으니 우리의 실력도 별달리 나을 게 없었지만, 엇박자 D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1절까지는 무난한 공연이었다.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진 우리의 공연을 보기 위해 무려 50명 정도의 학생과 몇몇 어른들이 *운집했고, 우리는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열심히 불려서 빨리 해치우자는 심정이었다. 1절까지는 엇박자 D도 열심히 립싱크를 해 주었다. 간주가 시작되고 2절이 시작되려고 할 때, 갑자기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반박자 빨리.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형클어졌다. 아이들은 우왕좌왕했고, 지휘를 하던 음악 선생은 눈을 크게 뜨고 엇박자 D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그만 부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엇박자 D는 눈을 꼭 감은 채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합창에 관심 없던 주위 사람들이 공연장 앞으로 몰려 들었고 엉망진창 노래를 들은 관객들은 우리의 노랫소리보다 더 크게 웃었다. 화가 난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게 했다. 아이들도 노래를 멈췄다. 하지만 눈을 감은 엇박자 D는 멈추지 않았다. 음악 선생이 그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쳤다. “야 이 새끼야, 부르지 말란 말이야.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입 다물어”에 리듬을 맞춰 뺨따귀를 두 대 더 올려붙인 음악 선생은 화를 식이지 못하고 무대 뒤로 사라졌고, 우리들도 무대를 내려왔다. 서 있을 이유가 없었다. 엇박자 D 혼자 무대에 서 있었다.

“기억나지. 그걸 어떻게 잊겠어?”

“나 그때까지 시디를 한 300장쯤 모았는데 축제 다음날 다 갖다 버렸

어. 방에서 하루 종일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시디를 한 장 한 장 뽑아냈어. 그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나 이 얘기 처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왜 노래를 불렀던 거야?”

“너무 창피했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입만 병긋병긋하고 있으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간주가 들릴 때쯤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라. 아주 작은 소리로 부른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 귀에만 들리게, 아주 작은 소리로, 조그맣게 부르면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내 정체? 그래, 내 정체는 몰랐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음악을 전혀 듣지 않았어. 물론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귀를 닫으니까 그 어떤 음악도 들리지 않더라. 신기한 일이지.”

“그런데 공연 기획을 하겠다고?”

“무성 영화 본 적 있어?”

“봤지. 찰리 채플린.”

“초창기 무성 영화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많아. 무성 영화 포르노 본 적 있지? 남녀가 섹스를 하는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 보는 내내 어떤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실제 나는 소리는 아닌 거지. 말하자면 환청 같은 게 들려.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무성 영화 포르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제일 재미있게 봤던 무성 영화는 <소리의 전 사회>라는 작품이었어. 카메라가 계속 철길을 찍는 거야. 철길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휘어졌다. 없어졌다 하는데 화면 전체가 일종의 소리인 거지.”

“하하, 나한테 영화 강의하냐? 무성 영화 포르노는 재미있긴 하겠다.”

“그 작품이 내 인생의 다른 길을 열어 줬다는 얘길 하고 싶었어.”

“그래서 전국의 철길이라도 찍었다는 거야?”

“대학원에 다닐 때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지. 다른 친구들은 단편 영화를 만들었지만 난 노래를 녹음했어. 사람들의 노래.”

“공연장의 음악 같은 거 말야?”

“아니, 무반주 노래들이지. 그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음치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더라. 음치들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

“나는 음치라네,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음치를 어떻게 찾아?”

“쉽진 않았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마다 귀를 들이대기도 했어. 그렇게 음치들을 찾아내면 무반주로 부르는 노래를 녹음했어.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음악 선생에게 맞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음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대부분의 음치들은 자신이 음치라고 생각하더라. 자신이 알아낸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거지. 평생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야. 나는 음치다, 나는 음치다.”

엇박자 D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엇박자 D의 인생역정 출연진에 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때 엇박자 D를 때렸던 음악 선생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 어찌면 옆에 있던 우리들도 그의 뺨을 함께 때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랬다면 미안한 일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공연 기획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야?”

“짧게 말하자면, 내가 음치가 아니란 걸 보여 주고 싶은 거야.”

“음치가 아니란 걸 보여 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숙제가 해결되기도 해?”

“글쎄, 그건 해 봐야 알겠지.”

나는 엇박자 D를 도와주기로 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첫째, 엇박자 D가 다른 기획사를 찾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고, 둘째, 공연 스태프 선정이나 음향, 장비, 무대 세팅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나에게 *일임했기 때문이고, 셋째,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공연이 성공한다면 내 몫의 이름값을 충분히 챙길 수 있었고, 실패했을 때는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괜찮은 흥정이었다. 나로서는 좋은 기회였다. 엇박자 D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안함도 조금은 있었을까.

총괄 프로듀서는 엇박자 D였고, 나는 무대 매니저 겸 보조 프로듀서 역할을 했다. 예술적인 부분은 엇박자 D가,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었다. 공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콘셉트나 공연 스토리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향 사고나 조명 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건 그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커다란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면 사소한 에피소드의 결함은 드러나지 않는다.

엇박자 D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다. 내 도움이 컸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각이 뛰어났고 순발력도 좋았다. 엇박자 D와 일을 하면서 공연 기획 일에 처음 뛰어들었던 10년 전이 떠올랐다. 총감독 밑에서 욕을 먹으며 일을 배웠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모든 게 전쟁이었다. 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총감독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루 20시간씩 일을 했다. 공연을 준비할 때면 그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같은 가수의 노래만 들었

다. 그래도 질리지 않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꿈속에서도 공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3년 만에 보조 프로듀서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후 5년 만에 프로듀서가 됐을 때 사람들은 다시 놀랐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다. 엃박자 D와 일하면서 보조 프로듀서 시절의 나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역할은 그때와 같았지만 이제는 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즐기고 있었다. 보조 프로듀서 역할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편안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이 힘들지 않았다. 어쩌면 나란 인간은 리더보다는 잔소리꾼 같은 2인자 역할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다. 엃박자 D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웠다. 10년 동안 공연 기획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음악이 혼재돼 있는 더블더빙의 노래에다 무성 영화의 여러 장면을 덧붙인다는 것도 새로웠고, 디제이가 무성 영화의 배경 음악을 리믹스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도 좋았다. 연주자들이 무성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 음악에 맞춰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짧은 무성 영화를 틀어 놓고 더블더빙이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무엇보다 더블더빙의 음악과 무성 영화가 잘 어울렸다. 더블더빙의 음악이나 무성 영화 중 한쪽이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두 요소의 균형이 좋았다. 엃박자 D가 무성 영화와 더블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엃박자 D의 칭찬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사실이기도 했다. 나 역시

일을 잘했다. 공연에 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엃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 공연 일주일 전 사운드 디자인을 체크하던 엃박자 D가 얘기를 꺼냈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겁나게 또 무슨 부탁이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가 연락을 해 줄 수 있을까?”

“누군데 내가 연락을 해?”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던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내가 연락하긴 좀 뭇해서 말야. 넌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렇긴 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엃박자 D와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초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 그들이 엃박자 D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었다. 친구들로부터 ‘공연 기획한다면서 어떻게 초대장한 장을 안 보내냐.’는 소리를 곧잘 들곤 했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20년 만에 전설의 합창단이 재회하겠네. 내가 몇 명 연락처를 아니까 얼추 선이 다 닿을 거야.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합창단에 있던 20명 중 한 명은 2년 전에 죽었다. 교통사고라고 했다.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조차 몰랐다. 한 명은 현재 암 투병 중이라고 했다. 간암이라고 했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였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망설이다 연락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겠다고 했다. 외국으로 출장 간 친구가 1명 있었

고, 이민 간 친구가 2명,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가 3명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오겠다고 했다. 13명이 모이는 셈이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의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기억날 리가 없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많지 않았고,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나는 친구들에게 공연장 앞쪽의 좋은 좌석을 주었다.

공연은 반응이 좋았다. 공연 3일 전에 모든 표가 팔렸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다. 공연 준비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짧은 취재였지만 취재 기사를 꼬드겨 인터뷰도 했다.

“가수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음악은 죽었다고, 죽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음반은 공짜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공연은 공짜로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이 시작돼야 합니다.”라는 내 말이 전국 방송을 탔다. 화면의 내 이름 앞에는 ‘더블더빙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었다.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공연 전날까지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을 꼼꼼하게 몇 번씩 확인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공연 당일, 공연을 두 시간 앞두고 엿박자 D와 나는 무대에 걸터앉아 커피를 마셨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라이 리허설도 끝났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텅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떨린다. 공연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곧 시작되겠지.”

“걱정 마. 오늘은 역사적인 밤이 될 거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

로운 공연이 시작될 거야.”

엿박자 D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간다. 똑, 그리고 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 뒤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관객들은 이제 곧 커다란 해일이 되어 공연장을 삼켜 버릴 것이다.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보았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러 댔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공연장의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 시작은 짧은 무성 영화였다. 한 남자가 기차길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기차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누워 있는 자세가 어쩐지 불편해 보인다. 남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누웠다. 다음 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베개를 들고 나타났다. 베개를 기차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 날엔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다음 날엔 오두막집을 한 채 이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차길 위에 올려 두었다. 오두막집 속에서 불이 켜졌다. 불이 꺼지는 순간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게 보였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기차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오두막집의 불이 켜졌다. 그리고, 충돌 직전, 빵, 기타 소리가 터졌다.

“와!”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해일이 일어났다. 내가 봐도 드라마틱한 시작이었다.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되던 스크린을 찢고 더블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다. 더블 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반으로 들던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는 강력한 음악이었다. 그들의 음악을 어떤 장르라고 규정하긴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낮을 잃어 가고 있었다. 록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품위 있었고, 펑크보다 리드미컬했다.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엷박자 D의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 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쩡그린 얼굴과 더블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엷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다. 더블더빙이 엷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엷박자 D를 위한 엷박자 연주곡.’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양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양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 봐.”

무선 헤드셋으로 엷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 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엷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엷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꺼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엷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

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병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병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병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